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3. 15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01



등록금 걱정은 덜고, 배움의 기회는 넓히는 큰 배움(大學)

조옥경·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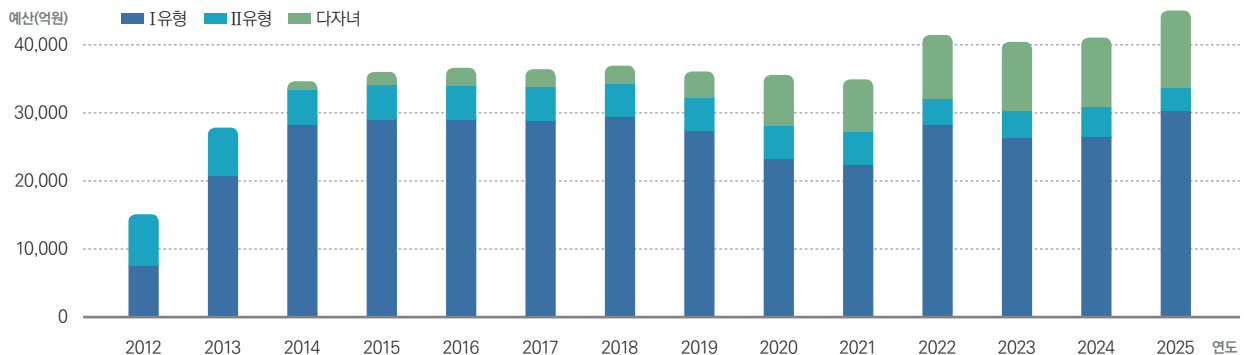
- ⦿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다자녀 가구 장학금 신설, 학자금 지원 9구간 대상 장학금 지원 등 지속해서 확대·재편되며 보편적 교육 복지의 기반을 넓혀 옴.
- ⦿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국가장학금을 중심으로 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충당률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아직 꽃샘 추위가 남아 있는 3월, 대학 캠퍼스는 새내기과 재학생들로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새학기의 시작은 대학생들이 다시 캠퍼스에 생기를 채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등록금을 떠올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2012년 첫발을 댄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은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확대·재편되었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2012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원 유형을 넓히고, 예산을 키우며,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해 왔다. 특히 I유형(학생 직접지원형)을 중심으로 지원 단가를 높이고,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왔다. 2014년에는 다자녀 유형이 새로 도입되었고, 학자금 지원 대상 구간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에는 9구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1]의 유형별 예산 추이와 <표 1>의 소득 구간별 지원 단가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2012~2025년 국가장학금 유형별 예산(조ок경 외, 2025, <표II-5> 재구성)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3), 교육부(2014~2018, 2020~2021, 2024~2025a), 한국장학재단(2019, 2022~ 2023)

표 1 2012~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지원 단가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2012	450	225	135	90						
2013	”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2014	”	”	450	337.5	247.5	157.5	112.5	”	”	
2015	480	480	480	360	264	168	120	”	”	
2016	520	520	520	390	286	”	”	”	”	
2017	”	”	”	”	”	”	”	”	”	
2018	”	”	”	520	390	368	368	120	”	
2019	”	”	”	”	”	”	”	”	”	
2020	”	”	”	”	”	”	”	”	”	
2021	”	”	”	”	”	”	”	”	”	
2022	700	”	”	”	”	390	390	350	350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2023	〃	〃	〃	〃	〃	〃	〃	〃	〃		
2024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	〃		
2025	〃	〃	〃	〃	〃	〃	〃	〃	〃	100	
다자녀 (2025)	첫째, 둘째	등록금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135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2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3), 교육부(2014~2018, 2020~2021, 2023~2025a), 한국장학재단(2019, 2022)

- 조옥경 외, 2025. <표 II-6> 중 변화가 있는 연도만 표시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고등교육예산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국가장학금 예산도 장기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고등교육예산 대비 국가장학금 예산 비율은 2012년 28.13%, 2014년 39.96%, 2025년 28.82%로 나타난다(조옥경 외, 2025, <표 III-2> 참조). 2014년에 비해 비중 자체는 낮아졌지만, 국가장학금 예산의 절대 규모는 계속 커졌다는 점에서 지원 기반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안에서도 유형별 비중은 적지 않게 달라졌다. 특히 I유형과 다자녀 유형의 예산 비중이 확대되었다. I유형은 2012년 전체 예산의 42.86%에서 2014년 82.00%까지 크게 늘어난 뒤, 2025년에는 67.57%로 조정되었다. 여기에 2014년 새로 도입된 다자녀 유형은 도입 당시 3.54%에 그쳤지만, 2025년에는 24.84%까지 커졌다(조옥경 외, 2025, <표 III-2> 참조). 이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인 동시에 저출생 대응과도 맞물려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의 등록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달라졌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과 비교하여 2023년 일반대 학생 1인당 총장학금은 226.9만 원에서 389.8만 원으로 연평균 5.04%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연평균 8.56% 증가하여 장학금 확대를 이끈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외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지자체장학금, 사설 및 기타장학금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지자체장학금은 2012년 0.8만 원에서 2023년 2.2만 원으로 절대 금액은 여전히 소규모이나 연평균 9.7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장학금/등록금×100)은 41.56%에서 56.61%로 상승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4.36%)보다 사립대학(+5.13%)의 장학금 증가율이 다소 높았으나, 총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은 국공립대학이 55.25%에서 72.68%, 사립대학이 40.04%에서 55.03%로 나타나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보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5.36%)이 수도권(+4.5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등록금 총당률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지속적으로 웃돌았다.

교내장학금은 근로장학금, 성적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기타장학금으로 구분되는데,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총액은 2012년 117만 원에서 2023년 132.6만 원으로

연평균 1.14% 증가하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근로장학금이 약 6.5만 원에서 약 9.8만 원으로 연평균 3.75% 증가하였고, 성적장학금은 연평균 86.46% 증가하였다.¹⁾ 반면 교직원장학금(-35.94%)과 기타장학금(-29.37%), 저소득층장학금(-1.98%)은 감소세를 나타내, 교내장학금의 구성이 성과·근로 기반 지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조옥경 외, 2025). 기타 장학금에 해당하는 사례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소득 외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이색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KAIST의 등산 실적 기반 미산 등산장학금(동아일보, 2025.12.12.), 한성대의 독서클럽 참여 및 발표 실적 기반 장학금(한성대학교, n.d.), 삼육대의 직계가족 동반 재학 시 지원하는 가족장학금(삼육대학교, 2025), 세종대의 성적 향상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성적향상장학금(세종대학교, 2025) 등이 그 예로, 대학이 건강, 독서 습관, 가족 상황,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를 장학제도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일반대학 특성별 학생 1인당 장학금 및 등록금 총당률, 학자금 대출액 변화

(단위: 천원, %)

구분	연도	총 장학금	교외 장학금 ¹⁾	교내 장학금 ²⁾	국가 장학금	등록금 총당률 ¹⁾	등록금 총당률 ²⁾	
합계	2012	2,269	1,098	1,170	988	41.56	21.42	
	2023	3,898	2,572	1,326	2,439	56.61	35.43	
	증감률	5.04	8.04	1.14	8.56	2.85	4.68	
설립 유형	국공립	2012	1,871	1,228	643	1,082	55.25	35.13
		2023	2,991	2,258	733	2,093	72.68	50.87
		증감률	4.36	5.69	1.19	6.19	2.52	3.42
	사립	2012	2,347	1,073	1,274	969	40.04	19.91
		2023	4,070	2,632	1,438	2,505	55.03	33.87
		증감률	5.13	8.50	1.11	9.01	2.93	4.95
소재지	수도권	2012	2,278	1,064	1,214	921	38.29	18.49
		2023	3,718	2,301	1,417	2,149	49.87	28.82
		증감률	4.55	7.27	1.42	8.01	2.43	4.12
	비 수도권	2012	2,263	1,120	1,143	1,029	44.05	23.58
		2023	4,020	2,757	1,263	2,637	61.90	40.60
		증감률	5.36	8.54	0.91	8.93	3.14	5.06

주¹⁾ 교외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지자체장학금, 사설 및 기타장학금으로 구분됨.

주²⁾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기타장학금으로 구분됨.

주³⁾ 등록금 총당률1: 총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 등록금 총당률2: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

출처: 대학알리미(2013~2024)의 장학금 수혜 현황, 등록금 현황 자료 재구성

1) 성적장학금의 연평균증감률이 86.46%로 높게 나타난 것은 2012년 기준값이 약 370원으로 매우 작았기 때문임. 실제 금액은 370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었지만, 출발점이 워낙 낮아 증감률이 크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 수치를 그대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함.

전문대학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23년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이 210.2만 원에서 390.6만 원으로 연평균 5.79%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가장학금이 연평균 9.08% 증가하여 장학금 확대를 주도하였다. 교외장학금 중 지자체장학금은 0.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절대 금액은 소규모이나 연평균 7.9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되었다. 총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은 53.20%에서 65.56%로,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은 35.64%에서 48.47%로 상승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2023년 기준 국공립 전문대학의 총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이 100.0%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등록금 수준에 상응하는 장학금 보전이 이루어진 반면, 사립은 64.35%에 그쳐 격차가 뚜렷하였다. 소재지별로도 비수도권의 총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이 71.25%로 수도권의 55.32%를 웃돌아, 일반대학과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교내장학금은 2012년 93.4만 원에서 2023년 92.9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0.04%)하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근로장학금이 6.4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연평균 0.27% 소폭 증가하였고, 기타장학금이 38.1만 원에서 53.4만 원으로 연평균 3.13% 증가하였다. 반면 성적우수장학금(-2.52%), 저소득층장학금(-4.54%), 교직원장학금(-2.97%)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일반대학 교내장학금이 성과·근로 기반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인 것과 달리, 전문대학에서는 교내장학금 전반이 축소되는 가운데 기타장학금 비중이 늘어나는 다소 다른 모습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조옥경 외, 2025).

표 3 전문대학 특성별 학생 1인당 장학금 및 등록금 총당률, 학자금 대출액 변화

(단위: 천원, %)

구분	연도	총 장학금	교외 장학금 ¹⁾	교내 장학금 ²⁾	국가 장학금	등록금 총당률 ¹⁾	등록금 총당률 ²⁾	
합계	2012	2,102	1,169	934	1,126	53.20	35.64	
	2023	3,906	2,977	929	2,927	65.56	48.47	
	증감률	5.79	8.87	-0.04	9.08	1.92	2.83	
설립 유형	국공립	2012	1,434	916	518	843	91.58	62.57
		2023	2,288	1,513	775	1,390	100	79.25
		증감률	4.34	4.67	3.74	4.65	0.80	2.17
	사립	2012	2,115	518	942	1,131	52.65	35.25
		2023	3,935	775	932	2,955	64.35	47.89
		증감률	5.81	8.92	-0.09	9.12	1.84	2.82
소재지	수도권	2012	1,993	1,035	898	992	46.96	31.34
		2023	3,746	2,796	949	2,949	55.32	39.99
		증감률	6.20	9.45	0.51	9.71	1.50	2.24
	비수도권	2012	2,226	1,266	960	1,112	56.68	38.05
		2023	4,032	3,118	914	3,066	71.25	53.17
		증감률	5.55	8.54	-0.45	8.71	2.10	3.09

주¹⁾ 교외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지자체장학금, 사설 및 기타장학금으로 구분됨.

주²⁾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기타장학금으로 구분됨.

주³⁾ 등록금 총당률1: 총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 등록금 총당률2: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총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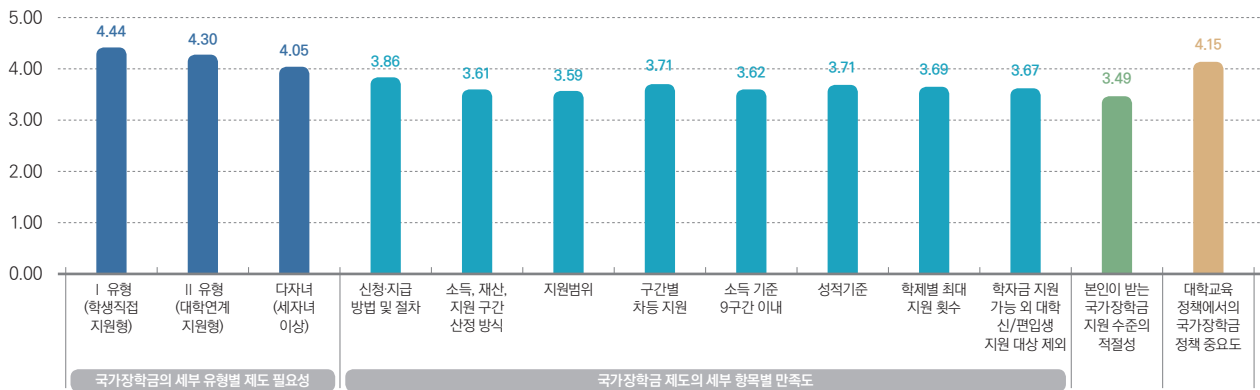
출처: 대학알리미(2013~2024)의 장학금 수혜 현황, 등록금 현황 자료 재구성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장학금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생 대상 인식·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024-2학기 또는 2025-1학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I·II·다자녀 유형) 수혜 경험이 있는 일반대 및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498명 응답)으로, 2025.5.26.~7.2.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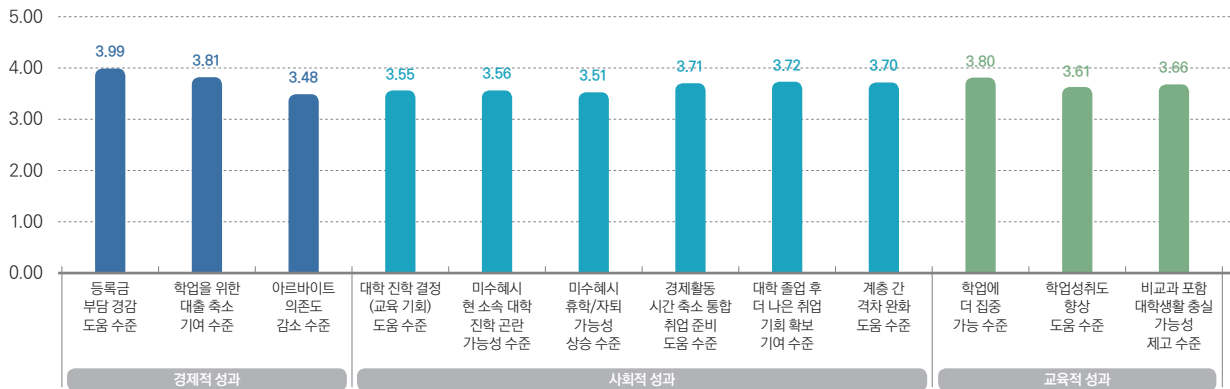
먼저 국가장학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점 이상). 대학교육 정책에서 국가장학금의 중요도 역시 높게(4.15) 평가되어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강한 요구와 지지가 확인되었다. 제도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3.59~3.8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신청·지급 절차'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3.86) 행정적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난 반면, '소득·재산 산정방식'(3.61)과 '지급 범위'(3.59)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2 국가장학금 정책 인식·평가 결과



체감 성과 역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성과에서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3.99), '대출 축소 기여'(3.8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아르바이트 의존도 감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3.48). 사회적 성과에서는 '졸업 후 더 나은 취업기회 확보'(3.72), '경제활동 시간 축소를 통한 취업준비 도움'(3.71), '계층 간 격차 완화'(3.70)가 비교적 높았고, '미수혜 시 현재 대학으로의 진학 곤란 가능성'(3.3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적 성과에서는 '학업에 더 집중 가능'이 가장 높았으며(3.80), '비교과 포함 대학생활 충실 가능성 제고'(3.66), '학업성취도 향상 도움'(3.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자기보다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 및 취업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책으로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국가장학금 정책의 체감 성과



국가장학금은 단순한 등록금 보조를 넘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대출 의존을 줄이고 학업 및 취업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조옥경 외, 2025). 이처럼 우리 사회 미래 인재의 성장 여건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국가장학금은 사회적 투자로 볼 수 있으며(서울경제, 2025.8.18.), 앞으로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두텁고 정교한 지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침 지난달부터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2/3~3/17)이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학생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여,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조옥경·김지하·백승주·손윤희(2025). 국가장학금 정책의 운영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대학알리미(2013~2024). 장학금 수혜 현황, 등록금 현황 자료.
- 동아일보(2025.12.12.). 권준하 회장, 5억 펀드 기부...KAIST에 '등산하면 받는 장학금' 생겼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1212/132953451/1> (2025.3.11.인출)
- 삼육대학교. (2025, February 24). 2025-1학기 가족장학금 신청안내. https://www.syu.ac.kr/blog/2025-1%ED%95%99%EA%B8%B0-%EA%B0%80%EC%A1%B1%EC%9E%A5%ED%95%99%EA%B8%88-%EC%8B%A0%EC%B2%AD%EC%95%88%EB%82%B4/?utm_source (2025.3.11.인출)
- 서울경제(2025.8.18.). 국가장학금 12년... '교육비 경감'에서 '사회적 투자'로 진화. https://m.sedaily.com/article/14105827?utm_source=chatgpt.com (2025.3.11.인출)
- 세종대학교 학생지원과. (2025, October 15). 2025-2 성적상장학금 신청안내. https://www.sejong.ac.kr/kor/intro/notice7.do?articleNo=857819&mode=view&title=2025-2+%EC%84%B1%EC%A0%81%ED%96%A5%EC%83%81%EC%9E%A5%ED%95%99%EA%B8%88+%EC%8B%A0%EC%B2%AD%EC%95%88%EB%82%B4&utm_source (2025.3.11.인출)
- 한성대학교. (n.d.). 교내장학(재학생). https://hansung.ac.kr/hansung/6264/subview.do?utm_source (2025.3.11.인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